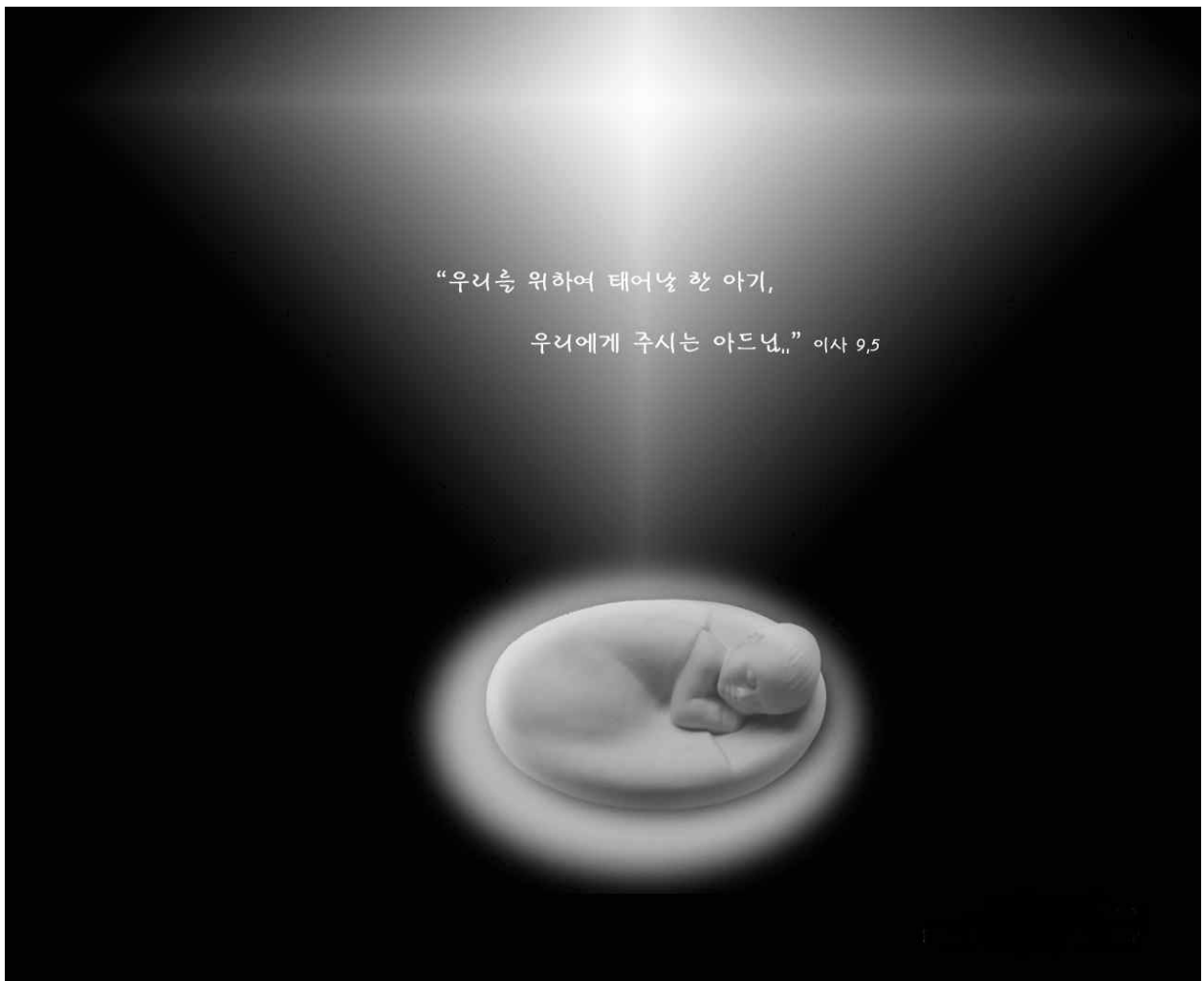


만남

2016 12월
통권 143호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태어날 한 아기,
우리에게 주시는 아드님.” 이사 9,5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님 : 최 종 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신부님 칼럼	+ 엘리야를 희망하며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죄 사함을 받은 이의 행복	4
주임신부님 교리	교리 155~157	7
기도 소개	그리스도 우리의 전부	11
나눔	성탄	12
찬양	낮은 자 되게 하신 주	14
공동체 소식		15
지방 공동체 소식		19
우리들의 모습		20
활동단체 모임 및 연락처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23
미사안내		24

《교황님의 12월 기도지향》

❖ 일반 지향 - 난민 수용국

일반 지향 - 어린이 병사의 근절

어린이를 군인으로 내모는 주문이 온 세상에서 사라지도록 기도합니다.

❖ 선교 지향 - 유럽

유럽인들이 삶에 기쁨과 희망을 주는 복음의 진선미를 다시 찾도록 기도합니다.

+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루었다.

시절이 수상하고 삶이 고달플수록 예언자 엘리야 같은 인물이 기다려집니다. 열왕기 상권이 전하는 엘리야 시대의 상황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기원전 9세기 경 북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역대 어느 임금보다 더 악한 짓을 합니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제벨과 혼인하고, 가나안의 우상 바알의 신전을 짓고 제단을 세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아세라 목상도 세웁니다. 그리고 국록(國祿)으로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을 고용하여 참모로 삼고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1열왕 16,29이하) 간부(姦婦) 이제벨의 농간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가로채며 끊임없이 악한 일을 골라서 하던 그는 하느님의 저주를 받습니다.(1열왕21,1-29)

도탄에 빠진 백성들 앞에 예언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는 가르멜 산에서 궁내(宮內) 예언자 무리들을 숙청하며 살아계신 하느님을 선포하지만 아합과 왕비 이제벨은 예언자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왕과 왕비의 박해를 받으며 외롭게 악의 세력과 싸우던 엘리야는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오릅니다.(2열왕2,1-18)

그 이후로 백성들은 부정과 불의가 판을 치는 환난과 핍박의 시절을 만날 때마다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랐던 엘리야의 재림을 고대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도 예언자 엘리야 같은 인물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대림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성탄 대축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어야 합니다. 늘 고해성사에 가깝게 계시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로 초대하시는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성체성사에 가깝게 계시어 작은 조각에 머물러 계시는,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그 분의 가난함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삶으로 초대받은 당신이 이 시대의 엘리야입니다.

당신은 말과 행동으로 살아계신 하느님을 선포해야 할 소명을 받았습니다.

❖ 죄 사함을 받은 이의 행복(시편 32,1-7)

◆ 저번 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한다.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517번 “내가 절망 속에”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화답송)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 주님! 저희가 죄에서 벗어나 당신의 행복 속에 살게 하소서.

◆ 하느님 말씀 (복음 나눔)

(진행자) 한 분이 시편 제32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32, 1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고
잘못이 덮여진 이!
- 2 행복하여라, 주님께서
허물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그 열에 거짓이 없는 사람!
- 3 제가 입 밖에 내지 않으려 하였더니
나날이 신음 속에 저의 뼈들이 말라들었습니다.
- 4 낮이고 밤이고
당신 손이 저를 짓누르신 까닭입니다.
저의 기운은 여름날 한 더위에
다 빠져 버렸습니다.
- 5 제 잘못을 당신께 자백하며
제 허물을 감추지 않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자 제 허물과 잘못을

당신께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6 그러므로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모두 곤경의 때에 기도드립니다.

큰물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하리라.

7 당신은 저의 피신처.

곤경에서 저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환호로

저를 에워싸십니다.

1.(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2.(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3.(진행자) 마지막으로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나눔)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다.)

- 내가 잘못을 했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나누어 봅시다.

- 내가 잘못했던 일들을 용서받았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나누어 봅시다.

◆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소공동체장)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죄는 많은 경우 우리의 욕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무엇인가를 더 가지고 싶다는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고 싶지 않다는 욕심으로 인해 우리는 죄에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들 안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안에서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느님보다 세상을 선택합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삶 안에서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하느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다시 찾았을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그동안 당신을 떠나 있었던 일을 모두 다 용서해 주시고, 잊어주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인이 됩니다. 이를 위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희생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며 늘 하느님께 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내 욕심을 비워내고, 죄에서 벗어날 때 하느님께서는 그 빈자리에 당신의 은총을 가득 채워 주시고, 우리들의 보호자로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시기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대림시기는 우리들이 욕심과 죄를 되돌아보며 돌아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대림시기를 보내면서 진정으로 하느님께로 돌아가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 자유기도 (진행자) - 영성체 후 : 마음에서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

◆ 사제와의 통교 - 미사 강복 후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37번 “행복한 사람들”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준주성법 제 3 권 내적 위로에 대하여

교리155

1장 충실한 영혼에게 이르는 그리스도의 내적 말씀

1 “하느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는 듣고자 하네.” (시편 85,9)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자기 내면에 받아들이고 주님의 입으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받는 영혼은 행복하다. 하느님 말씀의 비결을 알아 이 세상이 소곤거리는 소리에 기울이지 않는 귀는 행복하다.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상관치 않고 안에서 가르쳐 주는 진리에 주의를 집중하여 듣는 귀는 행복하다. 밖에 있는 물건에는 시선을 두지 않고 안의 사정만을 살펴보는 눈은 행복하다. 내적 사정을 꿰뚫어 보고, 매일 수업修業으로 천상의 신비를 알려 힘쓰는 이는 행복하다. 모든 시간을 하느님께 바치려 하면서, 세상의 모든 장애물들을 없애려는 이는 행복하다.

2 이런 것들을 명심하라, 내 영혼아. 네 안에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으려면, 너는 이 세상을 멀리하고 네 육정의 문을 잠가라. 네가 사랑하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구원이다.” (시편 35,4) 나는 네 평화요, 나는 네 생명이다. 내게 너를 온전히 맡겨라. 그러면 평화를 얻으리라. 잠시 지나가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영원한 것을 구하라. 현세의 모든 것은 유혹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창조주에게서 버림을 받는다면 모든 피조물이 네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세상만사를 제쳐 놓고 너의 창조주를 충실히 섬겨 그의 뜻에 맞춰라. 그러면 참된 행복을 얻으리라. “

교리156

제4장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느님 대전에서 생활함

1 주님의 말씀 아들(딸)아, 진실한 마음으로 내 앞에서 거닐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를 찾는 사람은 어떤 공격에도 걱정하지 않을 것이며, 악인들이 유인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진리가 그를 구원해 줄 것이다. 진리가 너를 구해준

다면 너는 참으로 자유로울 것이며, 사람들이 말하는 헛된 소리에 관심조차 두지 않을 것이다.

2 제자의 말 주님,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빕니다. 주님의 진리가 저를 가르치시고, 저를 지켜 주시고, 축복의 그날까지 저를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모든 악한 욕망과 모든 절제 없는 사랑을 제게서 없애 준다면 저는 커다란 마음의 자유를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길을 다닐 것입니다.

3 주님의 말씀 나는 너에게 무엇이 바른 길이요, 무엇이 내게 맞는 것인지 가르쳐 주겠다. 너는 네 죄를 알아내고, 그것이 잘못임을 깨닫고, 진정으로 통회하라. 그리고 어떤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네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라. 실제로 너는 허다한 사욕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사욕에 사로잡혀 있는 죄인이다. 그래서 항상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번민하며, 쉽게 실망한다. 너에게는 스스로 영광으로 삼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도리어 너를 낮추어야 할 것들만 많으니 너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는 더 연약한 사람이다.

4 그러므로 네가 행하는 모든 일 중에 훌륭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영원한 것이 아니면 위대한 것도 없고, 오묘한 것도 없으며, 가치 있는 일도 없을 줄로 생각하라. 또 영원한 것이 아니면 고상한 것도 없고, 참으로 찬미할 만한 것이나 부러워할 것도 없는 줄로 생각하라. 네가 모든 것을 제쳐 놓고 사랑해야 할 것은 오직 영원한 진리며, 네가 항상 불만족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은 말할 수 없이 비천한 네 처지다. 네 악습과 죄악보다 더 두려워하고 책망하고 피해야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하라. 그리고 세상에서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네 악습과 죄악만큼 원통히 여길 것도 없다고 생각하라. 어떤 사람들은 진실한 마음 없이 내 앞에 버젓이 드나드는데, 이는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자신의 구원에 대한 일을 소홀히 하면서 오직 호기심과 교만한 마음으로 나의 비밀과 하느님의 거룩한 일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하는 그런 일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 교만함과 호기심으로 더 자주 시련을 당하고, 더 큰 죄악에 떨어진다.

5 너는 하느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전능하신 분의 분노를 무서워하라. 지존하신 분의 일을 입에 올리려 하지 말고, 오히려 네 죄악을 두루 살펴 얼마나 크게 죄를 짓고, 해야 할 선행을 얼마나 소홀히 여겼는지 헤아려 보도록 하라. 어떤 사람은 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심이 있는 줄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상본이나 성물 혹은 그림 같은 것을 지니고 있는 것이 신심이 있는 줄로 안다. 어떤 사람은 입으로는 나를 모신다 하지만 정작 그 마음에는 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지력에 빛을 받아 정서가 정화되어 항상 영원한 곳을 지향하며, 세속의 것을 거북하게 여기고 필요한 것만 겨우 챙기는 정도에 그친다. 이런 사람은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깨닫는다. 성령께서는 세상의 것은 천히 보고 천상의 것을 사랑하라 가르치시고, 세상은 소홀히 보고 하느님 나라를 밤낮으로 사모하라 가르치신다.

교리157

제5장 천상적 사랑의 놀라운 효과

5 사랑은 깨어 있고, 잘 때에도 숙면하지 않는다. 곤하여도 게으르지 않고, 무서운 일을 보아도 요동치지 않고, 오직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같이 위로 솟아오르며, 모든 장애를 무사히 통과한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들을 것이다. 영혼의 뜨거운 사랑은 하느님 귀에 크게 소리치는 것으로 들린다. 이 소리는 하느님께 “저의 주님, 저의 사랑, 당신은 저의 전부이시며 저는 완전히 당신의 것” 이라고 소리친다.

6 제자의 말(하느님의 사랑을 청하는 기도) 제 사랑의 품을 넓혀 주시어, 사랑하는 것과 사랑에 녹아 사랑으로 목욕하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마음의 입술로 맛보는 법을 배우게 해주소서. 또한 사랑에 사로잡히게 하시어 크나큰 열정과 경이로써 저 자신을 초월하게 하소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사랑하는 주님 당신을 가장 높은 곳까지 따르게 하소서. 제 영혼이 지칠 때 까지 당신을 찬미하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당신으로부터 비취지는 사랑의 법이 명하는 대로 당신 안에서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7 **주님의 말씀** 사랑은 신속하고 참되며, 경건하고 쾌활하며, 온화하고 용감하며, 인내심이 있고, 성실하고 지혜로우며, 너그럽고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도 꺾이지 않는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찾지 않는다. 무슨 일에서든지 자신을 찾게 되는 사람은 사랑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두루 살피고, 겸손하며 정직하다. 사랑은 가볍지도 연약하지도 않으며, 헛된 것을 꾀하지도 않는다. 사랑은 순박하고 정결하며, 굳건하고 고요하다. 사랑은 모든 오관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사랑은 웃어른에게 순종하고 웃어른을 따른다. 하찮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 것에도 하느님께 헌신하고 감사한다. 슬픔 없이 사랑 속에서만 살수는 없음을 알기에, 하느님을 맛볼 수 없을 때라도 사랑은 하느님만을 희망하고 하느님만을 신뢰한다.

8 모든 것을 참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사랑해야 할 분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이 마땅치 않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라면 험하고 어려운 일도 기꺼이 껴안아야만 하고, 어떠한 역경을 당하더라도 그분을 떠나서는 안 된다.

비안네 신부

그리스도 우리의 전부

-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입니다.
-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그분은 의사이시며
- 고열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한 줄기 시원한 샘물이십니다.
- 우리가 죄악에 억눌렸을 때,
그분은 화해이시며
- 도움이 필요할 때, 그분은 힘이십니다.
-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그분은 생명이며
- 천국을 애타게 바라는 우리에게
그분은 길이시며
- 어둠을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에게
그분은 빛이시며
- 굶주린 우리에게 그분은 양식이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보고 맛들여라.
복되다 그분께 희망을 두는 자.

성 암브로시우스 (4세기)



성탄

지금부터 2000여년전 우리의 구세주께서 보잘 것 없고 조그만 동네 베들레헴에서 가난한 몸으로 나셨다.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보았던 사람은 극소수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지극히 비천한 사람들이었다. 목수인 요셉과 아내 마리아, 그리고 몇몇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다. 점점 예수를 구세주로 따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생겨났고, 마침내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께서 온 세상의 구세주라는 사실의 출발점은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보잘것없고 조그만 시골 마구간에서였다.

성탄은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의 축제가 되었다.

예수께서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 그것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가? 사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마음이 붕 떠서 들떠 있다. 크리스마스트리나 카드, 온갖 장식물, 캐럴 송에 그냥 덩달아 즐거워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선물에 더 마음이 가 있다.

글쎄, 그게 정말 인간을 위해 구세주로 나신 예수님의 성탄 의미를 알고 기뻐하는 것이라면 참 가당한 일 일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그저 분위기에 휩쓸려 먹고, 마시고 흔들어댄다. 우리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하겠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다음 두 가지다.

첫째,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켜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하느님께서 실제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다. 예수 믿는다고 당장 병이 낫고, 출세하고, 사업이 잘되고, 사기꾼한테 날린 돈 돌려받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죄로 찌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기심을 변화시켜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 성탄의 첫 번째 의미는 내가 먼저 변화하는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내 자신의 이기심을 몰아내야 할 것이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으로 남에게 고통을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예수성탄의 두 번째 의미는 죄로 찌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눈을 돌려 이기심으로 물든 세상의 고통을 몰아내야 하겠다. 특히 오늘의 우리나라 사회의 온갖 무질서와 혼란, 거짓말과 뇌물이 판을 치는 현실에서, 신앙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의 목표는 첫 번째로 가정일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냉정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도 곳곳에 악의 세력과 우리의 이기심이 들어있다.

우선, 나 자신의 이기심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하겠다. 남은 금방 눈치 채는 나의 결점과 습관들이지만,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모르고 사는 게 이기심으로 물든 우리의 실상이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 남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다음이다. 아내가 남편의 이기심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보기 싫고, 미운 마음이 드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의 이기심으로 알게 모르게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하겠다.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살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기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실제로 고치고, 틀린 것을 바로 잡고, 한마디로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고, 실제로 고통을 없애야 하는 것이다.

예수는 평생 하느님나라를 현실 안에서 실현하려고 노력했다. 예수의 행위는 기도만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었다. 예수는 개인의 고통을 실제로 제거했다. 병자를 고쳐주고, 창녀를 용서하고, 나자로를 살려주고, 마르타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고,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했다. 나아가 예수는 사회의 고통을 제거하려 했다. 신분을 철폐하고, 법을 뜯어고치고, 그리하여 구원을 미래가 아니라 현실에서 실제로 실현하고자 했다.

우리도 예수의 현실주의를 따라야 하겠다. 새해의 우리의 신앙이 현실의 구체적인 삶에서 뿌리를 가지도록 거듭 각오를 새롭게 해야겠다.

282 낮은 자 되게 하신 주

이형진

C CM7 Am7 Dm7 G
 내 가 높 아 지 려 세 상 의 줄 은 것 - 다 - 찾 았 으 나

C CM7 Am7 Dm7 G G7
 그 곳 에 내 형 제 - 짓 놀 려 통 곡 하 - 는 허 상 의 계 곡 들 뿐

C CM7 Am7 Dm7 G
 내 가 교 만 하 고 이 기 심 에 짓 놀 려 - 내 형 제 알 아 보 지 못 함 은

C CM7 Am7 Dm7 G
 내 마 음 어 둔 곳 에 주 이 름 가 뒀 놓 - 고 내 맘 대 로 한 교 만

C G7 F C G7 Dm G7
 내 가 - 사 랑 이 고 싶 었 지 - 내 가 - 자 유 이 고 싶 었 지 -

C E Am C7 F G7 C C7
 내 가 - 부 자 이 고 싶 었 지 - 그 러 나 난 가 난 한 사 람

F G7 Am F G7 C F G7
 주 님 을 찬 양 주 님 을 찬 양 나 를 낮 은 자

E Am C7 F G7 1.C 2.C rit Dm G7 C
 되 게 - 하 신 주 - - 주 님 을 찬 양 양 주 님 을 - 찬 양

❖ 12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나탈리아 (St. Natalia)	김 성 미	미 누 엘 (St. Manuel)	김 무 진
2일	비비아나 (St. Bibiana)	남 궁 현	25일 엠마누엘라 (St. Emanuela) 노 엘	허 선 애 이 동 훈
3일	비 앙 카 (St. Bianca)	허 미 란	26일 스테파노 (St. Stephen)	이 명 원 정 순 문 박 동 윤
4일	크리스티안	허 채 열 김 호 현		
6일	아 셀 라 (Asella)	김 보 경		
8일	마 리 아 (St. Maria)	박 순 옥 이 순 자 이 영 희 홍 미 옥	27일 요 한 (St. John)	이 기 열
13일	루 치 아 (St. Lucy)	박 우 연 배 수 현 한 상 아	29일 다 비 드 (St. David)	김 용 일
15일	크리스티아나 (St. Christiana)	홍 춘 자		
16일	노 아 (St. Noah) 아델하이트	박 노 아 진 윤 희		
			사 비 네	이 금 자

❖ 12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일	비비안나 (St. Bibiana)	이진아(O)	23일 빅토리아	강연희(H)
	바울리나	강미향(H)	25일 아나스타시아 노 엘 라	김영숙(B) 김유경(H)
13일	루 치 아 (St. Lucy)	최예린(B) 문정자(H) 강은지(B)	26일 스 테 판 스테파노 (St. Stephen)	문우영(H) 부종배(O) 유순식(H)
	오텔리아	김선우(O)	28일 스테파니 돔 나	이경숙(H) 김효선(H)

❖ 12월 성가번호

12월	입 당	봉 헌	성 체	마 침
4일	96	210	180	97
11일	93	212	156	89
18일	92(2)	220	151	90
24일		102	99	484
25일	98	103	101	106

❖ 12월 미사 전례 봉사자 ❖

12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카페 봉사
4일	이경규(안스카) 유곡지(아그네스)	허채열(크리스티안) 김영란(엘리사벳)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최장용(레오)	요셉 마리아회
11일	강신행(토마스) 김애란(세실리아)	김잔디(아그네스) 윤예진(모니카)	주일학교 복사단	1구역
18일	박귀동(토마) 허선애(임마누엘라)	배성우(도밍고) 심은희(안나)	주일학교 복사단	2구역
24일	김민수(아우구스티노) 이정훈(요나스)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이정수(토마스) 이현묵(요셉) 곽케빈(요셉)	3구역
25일	최화영(시몬) 최종금(로사)	김치수(도밍고) 김영희(클라우디아)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최장용(레오)	4구역
28일	허길조(안드레아스) 이명자(가밀라)			신자전체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10월 23일	10월 30일	11월 6일	11월 13일	11월 20일
계(€)	181.63	200.38	202.62	235.17	196.08
2차 헌금	139.18				135.79

❖ 자진헌납금 ❖

2016년 10.17 — 2016년 11.20 자진 헌납금 납부자 명단

현금납부 :

박춘실, 박귀동, 정마리아, 정정숙, 신옥희, 김형웅, 최장용, 최순남, 최승진, 김기연, 김건, 김경미, 김민수, 이수웅, 배성우, 김용일, 우동천, 이기열, 이경규, 이정수, 이현묵, 이영희, 이석우, 이정은, 이종하, 이중지, 이공종, 이수현, 안지영, 육종인, 한선지, 현영애, 손수희, 박종래, 박성아, 진윤희, 강순행, 강신행, 민경화, 윤예진, 서세원, 심동근, 한말조

구좌입금 :

강일남, 김대현, 김유석, 김동수, 김부남, 김진호, 김치수, 김원자, 아일링호프 정숙, 남궁 춘배, 백정선, 최성자, 최화영, 최현봉, 오옥수, 홍경영, 허두욱, 허길조, 허채열, 곽케빈, 방조 영자, 권지연, 이상봉, 이명원, 이성원, 이영원, 서유미, 김수혜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총무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진헌납금은 한인 천주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새로운 시기에 자비의 희년의 노력과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서로의 사랑과 이해로서 결실 맺어지길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에도 자비의 물결이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2. 대림 찰고집이 배부 됩니다. 새로운 출발에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찰고집은 성경 봉독입니다. 새해에 성경 통독(通讀)이 시작 되시길 바랍니다.
3. 대림시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성사 약속은 삼가시고 주일 미사 전 후에 성사 시간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4. 성탄에 있을 첫영성체 아들들 김서울 토마스 모어, 최희로 미카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청합니다.
5. 12월 25일 성탄 미사 후 작은 축제에 참여하실 교우 분들을 모십니다.
6. 12월 28일 송년미사는 17:00 만남 성당 밑 강당에서 있습니다. 음식 봉사 부탁드립니다.
7. 성탄 때 세례를 받는 방은일, 황태엽, 한규호, 형제 자매님들을 위하여 기억해 주시길 청합니다.
8. 12월부터 성체성가가 주일미사 때 봉헌되어 집니다.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도록 합시다.

❖ Bremen 공동체 소식

1. 소공동체 모임 : 브레멘 - 매월 3째 주 수요일 14시 Tel. : 0421255162
Visbek - 매월 3째 주 토요일 14시 Tel. : 04445 / 2431
2. 11월과 12월에 은총의 판공성사가 있습니다.
3. 신부님과 하는 마지막 미사입니다.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00시에 안토니오 성당에서 공동체 소공동체를 갖습니다.
2. 매달 첫째 주 토요일 15:00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청년 소공동체를 갖습니다.
담당자 : 김명수 마태오 0151 2910-3699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1. 11월 20일 일요일 Telgter Marien Kapelle로 공동체가 성지순례를 하였습니다. 11시 30분 미사 참석 후 점심식사를 하고 기쁜 시간을 가졌습니다.
2. 12월 3일 오후 3시에 성탄노래연습을 김형철 마리오, 이진아 비비안나 집에서 합니다.

2016 믿음의 샘 뿌리아 연차 총 친목회



사 목 협 의 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 장	최 영 숙 데 레 사	040/ 3742 0006 0157 5012 6332
구 역 장 모 임		공지 시 넷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회 장	각 구역장	각 구역장 참조
주 일 학 교		매주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교 사	윤 예 진 모 니 카	0157 5483 9145
연 령 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00분	만남성당	회 장	김 진 호 프란치스코	040/ 3742 0006 0152 0448 7382
예 비 자 교 리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복음화	공 석	대리 - 본당회장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Cu.	매월 첫째 목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이 순 자 마 리 아	040/ 4109 1742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 장	이 순 자 마 리 아	040/ 4109 1742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김 영 희 클라우디아	040/ 532 4138 0177 724 6335
	사랑의 모후 Pr. (청년반)	매주 화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박 성 아 베로니카	0176 8011 2329
구 역		1구역	구역장	김 매 자 베로니카	8509768	
			총 무	김 정 숙 마르타	8322587	
		2구역	구역장	허 채 열 크리스티안	5709734	
			총 무	이 영 희 체칠리아	5277854	
		3구역	구역장	이 현 목 요 셸	6011594	
			총 무	이 경 규 안스카	6045311	
		4구역	구역장	문 경 영 아가다	20971988	
			총 무	정 경 숙 안 나	6729549	
청년부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박 성 아 베로니카	0176 8011 2329	
			부회장	서 유 미 레지나	0171 867 2858	
요셉, 마리아		매월 둘째 수요일 평일미사 후	반 장	심 은 희 안 나	0157 8045 2206	

12 월 중 행 사 예 정 표

2016년도

(소공동체 없음)

함부르크 본당

일	요일	전례일	단체 행사	비고
1	목			
2	금			
3	토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사제(선교의 수호자) 대축일		브레멘 공동체
4	일	대림 제2주일(인권 주일)	사목협의회	
5	월			
6	화			
7	수	성 암브로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	대림특강 19:00 강당 오전 미사 없음.	
8	목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꾸리아	
9	금			
10	토			오스나브뤼크 공동체
11	일	대림 제3주일(자선 주일)	청년 소공동체	
12	월			
13	화	성녀 루치아 동정 순교자		
14	수	십자가의 성 요한 사제 학자		
15	목		요셉 마리아 소공동체	
16	금			
17	토			하노버 공동체
18	일	대림 제4주일		
19	월			
20	화			
21	수	동지		
22	목		연령회	
23	금			
24	토	성탄 전야	성탄 전야 미사 20:00 - 강당	
25	일	예수 성탄 대축일	예수 성심 성당 14:00	성탄 축제
26	월	성 스테파노 첫 순교자 축일		
27	화	성 요한 사도 복음사가 축일		
28	수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축일	송년미사 및 행사 17:00 - 강당	
29	목	성탄 팔일 축제 내 제5일		
30	금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가정 성화 주간		
31	토	성탄 팔일 축제 내 제7일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최 종 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목회장 최 영 숙 데 레 사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보 만 남 ❖

발 행 인 최 종 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viannae@hanmail.net
 본당신부님 H.P : 0176 8464 7981

편 집 인 남궁춘배 바로톨로메오 cbnamgoong@hanmail.net
 H.P : 0151 2341 2732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내용은 함께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전, 미사 10분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첫 째, 둘째 금요일 17시 30분(복음 나누기회, 2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ss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테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5시 30분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sse 12a, 30625 Hannover

회 장 : 이범이(바오로), Tel : 0511 748945, H.P : 0157 5447792